

김영록 지사 “단군이래 최대 황금찬스… 진짜 황금으로”

농산업·에너지 첨단산업·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 모델 제시하는 지역으로 성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올해 초 나라가 백척간두 위기에서 출발했지만, 새 정부 탄생 이후 모두가 숨가쁘게 노력한 결과 전남은 단군이래 최대 황금찬스를 맞았다. 기회를 잘 살려 진짜 황금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12월 정례회를 통해 “비상 시국상황에서 호남이 나라의 근간을 지키고 잘 극복하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밑바탕이 됐고, 이에 대통령이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전남에 탄탄대로의 길을 만들어줬다”고 지난 1년을 회상했다.

실제로 전남도는 올 한 해 ▲2018년 6조 원대였던 국비 확보액이 2026년 10조 돌파 ▲오픈AI와 SK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삼성SDS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 도약 기반 마련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후보지에 여수 선정 ▲유류보 10만 구축자 돌파와 조희수 100만 회 돌파 콘텐츠 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황금 찬스가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019년 7월 블루 이코노미 비전선포를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8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12월 정례회'에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 대전환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열심히 달려왔다”며 “그 결과 재생에너지와 풍부한 물, 전력계통, 에너지공대를 비롯한 글로벌 대학 등 AI시대를 선도할 기본적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에 황금 찬스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황금같은 기회는 기회일 뿐이다. 앞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진짜 황금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최대 과제인 에너지 문제를 잘 풀어간다면 전남은 농업 AX 플랫폼 추진 등으로 전통 농수산업을 강화하고, 에너지 첨단산업을 선도하면서 문화관광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고 표준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대와 순천대 두 글로벌대학이 통합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의과대학 추진도 잘 풀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2026년 2월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이 배정되면 이르면 2027년 개교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염선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8일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KRC 비전 데이'를 열고 혁신 실행 전략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공식 선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인중 농어촌공사장이 이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창립 117주년’ 농어촌공, 성장·구조·신뢰 3대축 혁신 청사진 “변화와 혁신을 일상으로 만드는 조직될 것”

한국농어촌공사가 8일 창립 117주년을 맞아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 조직 혁신 청사진을 내놓았다.

농어촌공사는 이날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KRC 비전 데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 실행 전략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공식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해당 프로젝트 3대 축으로 ▲성장동력 재충전 ▲경영구조 재설계 ▲고객신뢰 재회복을 제시했다.

‘성장동력 재충전’을 위해 농업·농촌·농촌·농촌 강화와 미래농업 육성, 농어촌 공간 혁신, 농어촌 에너지 전환, 유역별 물 환경 개선 등 분야를 혁신하고 신성장 분야를 전략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구조 재설계’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재무 건전성 개선, 재무위협

관리 강화,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다.

경영 체계와 조직 운영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고,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으로 쇄신한다는 구상이다.

‘고객신뢰 재회복’을 위해서는 윤리·안전·공감 캠페인(KRC CSF Wave 1·2·3), 지역사회 보편적 서비스 확대, 수자원 절약·확충 활동(Water Positive)을 추진한다. 윤리경영과 조직문화 혁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현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 농어촌공사 설명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장은 “이번 'KRC 비전 데이'를 계기로 미래세대의 감각과 조직의 실행 역량을 결합해 변화와 혁신을 일상으로 만드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신영길 기자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기금'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며 총 1천648억 원(광역기금 304·기초기금 1천344)을 확보, 5년 연속 전국 최다 기금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국 8개 우수 등급 시군에 화순군과 완도군이 포함됐고, 11개 S등급 시군에 고흥군·영암군·신안군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위 등급 지자체를 배출했다.

올해는 기금 운용 방식이 전면 개편된 첫 해다. 기존 인프라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실제 성과를 묻는 프로그램 사업계획 평가를 대폭 강화한 것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5년 연속 최다

내년 기금 1천648억원 확보... 지역활력 정책 성과 가시화

이 핵심이다. 지난해 단순 2등급(우수-양호) 체계였던 평가 기준이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추가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으로 4등급(우수-S-A-B) 체계로 전환되면서 지자체별 자원 배분에 대한 격차가 줄고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전남도는 지역 맞춤형 사업계획, 다양한 인구정책, 실행계획의 체계성 등 여러 평가 요소에서 균형

있는 전략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격화된 이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인구활력 전략'을 정립했다. 청년비전센터, 전남형 만일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지역활력타운 등 전주 기반 확충뿐 아니라,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등 프로그램형 사업까지 폭넓게

추진해 인구정책의 내실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시군의 투자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전남 전체 인구정책의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었다. 또한 이번 평가에 대비해 도·시군·전남연구원 이 함께하는 '원팀 체계'를 가동해 사업 구상부터 평가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평가자료 작성 가이드 제공, 투자계획 사전 컨설팅, 대면평가 예상 질의 대응훈련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각 시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 /신종팔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탕·찌개·국류 취급 배달전 문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위생관리 현장점검 및 맞춤형 지도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취약한 조리·보관 단계의 위생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업소별 취약사항을 진단해 개선 방향을 안내해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한다.

광주시, 겨울철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8~19일 맞춤형 현장점검... 조리·보관단계 위생요인 사전 차단

광주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9명을 6개반으로 편성해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식품접객업소 400곳이며, 일반·휴게음식점 등 탕·찌개·국류 취급업소(4분기 배달음식점 점검 제외)를 중심으로 구성해 자치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교육 이수 여부 ▲조리시설·기구의 청결관리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소비가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ATP 측정기를 활용한 조리장·종사자 손

위생 상태 확인 등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진행한다.

감시원은 지도 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복·위생모·마스크 등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업소 출입 때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시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안내하고, 자치구와 연계해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인기 기자

광주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17~19일 방문 접수... 지역경제 기여할 우수상품 발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6년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공급업체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려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상품을 발굴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품목을 확보해 답례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광주지역 내 관광·체험·숙박·식당 등의 관광 서비스 ▲광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지역에서 제조된 가공식품 ▲공예품·미술품 등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 총 4개 분야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품목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신청 업체는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역특산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

광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답례품 현황과 품목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광주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및 이윤권 ▲귀금속·보석류 ▲기타 미풍양속에 저해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공모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17~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2층 자치행정과 빛고을사랑팀(062-613-3362)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 공급 제안서 등 구비서류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일 꼭성